

▶ 신간도서 - 박주현 전북대 교수 '기자 없는 저널리즘'

저널리스트에 대한 의미 달라져야

미디어와 저널리스트가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통적 방식의 저널리즘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였던 저널리스트에 대한 의미나 개념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저널리즘의 경우 제도나 조직에 기반을 둔 저널리스트 이외 인터넷으로 무장한 시민기자, 블로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스트가 등장하면서 뉴스 생산과 유통 방식도 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른바 '기자 없는 저널리즘' 시대가 도래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박주현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겸 입학사정관이 펴낸 '기자 없는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북스)'은 전통적 방식의 저널리즘과 새로운 저널리즘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전문 기자들을 위협하는 요인과 새로운 형태의 취재·편집·기사 생산·기사 유통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저자는 책에서 '과연 기자 없이도 저널리즘이 가능할 것인가?'란 물음을 던지면서 드론·로봇·소셜 저널리즘과 달라진 취재환경 및 의제설정, 빅데이터·스트리밍 저널리즘과 달라진 독자 및 시민 참여 저널리즘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향후 도래할 저널리스트 및 저널리즘 형태를 상세히 조망했다.

인터넷으로 무장한 시민기자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면서 뉴스 생산·유통 방식 변화가

달라진 취재환경·의제설정 독자 등 깊이 있게 분석 향후 도래할 저널리즘 형태 조망

저서로는 기사를 오프로 바꿔 먹다뇨? (2008·인물과 사상),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2010·선인공저), 이것이 미디어 정치다(2013·한국학술정보),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2014·커뮤

니케이션북스), 선거보도의 열 가지 편향(2015·커뮤니케이션북스), 정치광고 걸작 10선(2016·커뮤니케이션북스) 등이 있다.

/정해은 기자



1960년대 무주 문화극장

“옛 극장 추억 사진 찾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 공모

“옛날 극장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찾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950~1980년대 당시 극장을 재현하기 위해 옛날 극장과 관련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출품 주제는 개인이 소장한 옛날 극장의 풍경이나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 극장 앞이나 안에서 촬영한 사진 등 극장과 관련된 사진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22일부터 오는 4월 23일까지 무주 산골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 파일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응모자에게는 무주산골영화제와 관련된 기념품이 증정된다.

신청작은 제5회 산골영화제 기간 전후인 오는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주 김환태 문화관 기획전시실과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대승한지마을 전통한옥 체험 상시 운영

완주군 대승한지마을(관장 이명기)은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승한지마을은 최대 50여명이 수용 가능한 한옥 세미나실과 접합과 현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한옥 체험관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과 조화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전통한지 초지체험, 한지 초지액자 만들기, 한지 고무신 만들기, 한지 손거울 만들기, 육각 연필꽂이 만들기 및 한지염서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한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특히 찬란을 빛낸 한국의 종이 고려한지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전국 유일의 한지 마을로서, 한지 장인들의 한지 제작 과정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그동안 대승한지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년 연속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에 선정돼, 한지 명품화를 넘어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명기 관장은 “고려지의 원산지 이곳에서 체험객들이 한옥숙박과 한지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의 향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메인 프로젝트, 네이버에서 볼 수 있다

영화제조직위, 네이버와 협약 체결 '디지털 삼인삼색' 33편 단독 공개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는 보다 양질의 페스티벌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네이버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직위원회는 네이버와 프리미엄 스폰서십 양해각서 교환 및 협약으로 전주국제영화제의 메인 프로젝트였던 '디지털 삼인삼색'의 단편영화 33편을 네이버TV를 통해 단독 공개한다.

이와 함께 영화제의 생생한 현장과 페스티벌을 찾는 명망 높은 감독들과 배우들의 모습이 브이 라이브(V LIVE)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이충직 집행위원장, 민성욱 부집행위원장, 이상용 프로그래머와 네이버의 박선영 리더, 조재운 리더 등이 참석했다.

이충직 집행위원장은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의 업무 협약으로 올해 영



지난 16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는 보다 양질의 페스티벌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제가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정해은 기자



소리문화전당,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전성진)은 2017년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시설은 공연장 4개소(모악당·연지홀·명인홀·아외공연장), 전시장 4실(갤러리 SORI), 국제회의장으로 대관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은 이메일(sor2449@naver.com) 및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공연 & 전시

유비비 전북대 교환교수 '소면원방' 전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교환교수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광저우대학교 유비비(LIU FEIFEI)교수가 전주한옥마을 내 교룡아트 스튜디오에서 중국화를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꾸밈없는 소소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단순하지만 깨끗한 내면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 이런 의미에서 전시 주제도 '소면원방(멀리 있는 자기 자신)'으로 삼았다. 소면은 화장을 하지 아니한 얼굴이라는 뜻으로 자신 마음에 살고 있는 원래 모습의 자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다양한 중국화 기법을 활용해 화선지에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완약경공부화라(바람처럼 꽃이 떨어진다), 정복삼삼배중주(쓸쓸하고 적막한 곁 안 한 잔술), 우이부망현란처(가끔씩 난간을 짚고 먼 곳을 바라보면), 하내운권운심처(깊은 곳 구름은 어쩔 수 없네) 등 24점의 작품을 펼쳐보인다. /정해은 기자



2017.4.7(금) ~ 4.12(수) 6일간 정음천변어린이축구장 및 벚꽃로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4.7(금) 18:30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4.7(금) ~ 4.9(일)

벚꽃 버스킹, 버블쇼, 키다리 배에로 풍선마임, 석고마임 캐릭터 인형탈, 이벤트 존, 봄노래 존, 로맨틱 포토존

벚꽃 야간 경관 조명 4.1(토) ~ 4.16(일)

제56회 전라예술제 4.8(토) ~ 4.12(수)

제13회 자생화전시회·제6회 자생차 페스티벌 4.7(금) ~ 4.12(수)

체험, 간식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4.7(금) ~ 4.12(수)

차량통제안내 : 4.7(금) 22:00 ~ 4.9(일) 22:00 -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 정주교 ~ 정동교(1.2km)

초대가수 공연



정주/조연비/오대성/양재동

주최·주관 | 정음시 JEONGEUP-SI 문의처 | 정음시청 관광개발과 539-5203